

01 간호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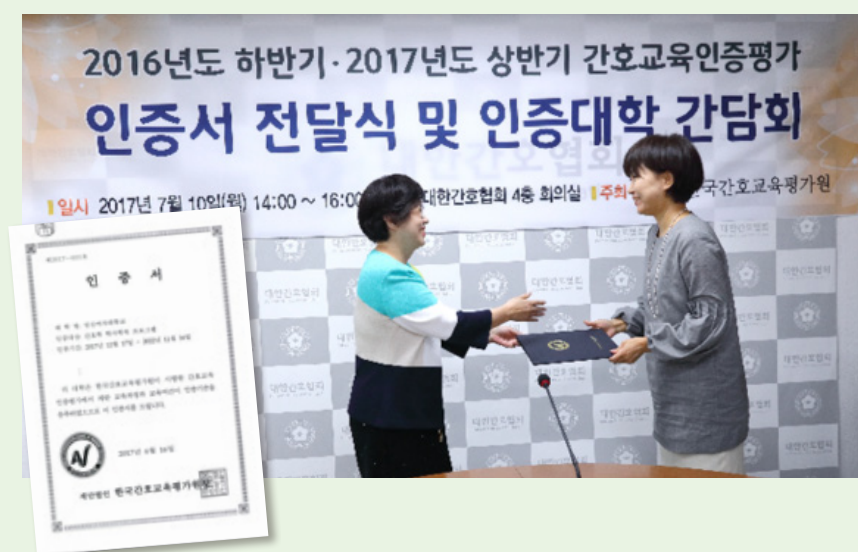


2017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강원도 한솔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신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간

호학과 새내기들은 학생처에서 개발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학과 선배들과 함께 친목을 도모하였다. 2월 20일에는 운정그린캠퍼스에서 간호학과 오리엔테이션이 실시되었으며, 오전에는 학과장의 전공설명 및 선후배와의 시간으로, 오후에는 교육 및 환영행사로 진행되었다.



2017년 상반기 3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 획득



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주관으로 실시된 3주기 '2017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전국 간호대학 중 최초로 '인증'을 획득하여, 질 높은 간호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임이 인증되었다. 인증기간은 2017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년이며, 인증서 전달식은 7월 10일 이루어졌다. 의료법 제7조에 따라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생에 한해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01 간호대학

나이팅게일 선서식

제10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2017년 11월 3일 운정캠퍼스 중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영나이팅게일로 선정된 백미현 학생의 선창과 함께 2학년 재학생 108명이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였다. 전문직 간호인으로서 초석을 다져온 학생들이 생애 처음 접하는 2018년 실습의 문턱에서 선서식을 통해 송고한 간호정신을 되새기며 앞으로의 자

세를 다짐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이 날 김호성 총장과 김은희 동문회 회장, 김동희 학장은 치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선서한 간호정신과 간호인의 길을 선택한 초심을 잃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우선시하는 간호전문인으로 성장해주길 바란다”며,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한 학생들을 격려했다.

영나이팅게일

영나이팅게일은 전학년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성적, 품행, 성실성이 돋보인 3명의 후보가 각축하였고, 백미현 학생이 최종적으로 영나이팅게일로 선출되었다.



학장 취임

2017년 11월 김동희 학장의 후임으로 김애리 교수(18기, 1979년 졸업) 간호대학 학장으로 인사발령되었다. 김애리 학장은 성인간호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국립의료원 간호대학 학장, 성신여자대학교 건강과학 연구소장 및 간호학과장을 역임하였고, 임기는 2년으로 2019년 11월 5일까지이다. 김애리 학장은 앞으로 2년간 간호대학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임교수 임용

2017년 3월 1일부로 신임교수로 천주영 교수가 임용되었다. 천주영 교수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아산병원 신경외과중환자실에서 근무하였으며, 연세대학교 간호학 석사학위 취득 후, 미국 매릴랜드 대학에서 박사를 취득하였다. 선인간호학과 노인간호학을 가르칠 예정이며, 관심연구분야는 생애말기치료, 연명의료중단, 유언장 등이다.

01 간호대학

졸업식 및 상장 수여

간호대학은 2017년 3월 3일(금) 오후 4시 30분 간호대학장실에서 김동희 간호대학장과 양승애 간호학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3학번 졸업생 조은정(한국간호대학(과)장 협의

회장상), 이예진(대한간호협회장상), 김영휘(한국간호과학회장상)에게 상을 수여하였다.



02 학생

주한 미육군 의무부대 브라이언 올굿 커뮤니티 병원 “2017 우수 간호사” 시상

2017년 5월 10일 주한 미육군 의무부대 브라이언 올굿 커뮤니티 병원(65th Medical Brigade Brian Allgood Army Community Hospital)에서 “2017 간호사의 주”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는 우리대학 천주영 교수, 한효진 학생 등이 대표로 참여하였다. 2016년 10월에 실습한 이안나 학생과 2017년 4월에 실습한 한효진 학생이 “2017년 우수간호사상(2017 Nursing Excellence Awards)”을 받았다. 병원장인 Harter 대령과 간호부원장인 Baxter 대령은 격려사에서 두 학생이 실습기간 동안 간호인으로서의 보인 전문성과 적극성을 강조하며, 이 학생들이 우수한 간호사로서 활약할 날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02 학생

유대감 형성 프로그램: '성신으로 뭉쳐 간호로 스며들다'

2017년 4월 1일 학생회 주최로 대강당에서 진행된 유대감 형성 프로그램이 개최되었다. 학장님과 학생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한국의 의료발전사"에 대한 구자익 석좌교수님의 특강이 있었다. "Nursing Talk Talk & 고민을 말해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의 간호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대시켰고, 선·후배간의 교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신여자대학교 간호학과 학생으로서의 일체감 형성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뜻 깊은 행사였다.



02 학생

조혈모세포 기증자: 2016학번 안여명

성신여자대학교 간호학과에서 두 번째 조혈모세포 기증자가 나왔다. 조혈모세포 기증자인 안여명(간호 2016) 학생은 2016년 4월, 교내에서 진행된 「2016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 등록 나눔텔레비 캠페인」에 참가하여 기증 희망자로 등록신청을 한 이후 11월에 조직적합성항원형(HLA형)이 일치하는 환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증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조혈모세포는 혈액을 만드는 어머니 세포라는 뜻으로, 기증서약을 통해 항원 일치자를 찾게 되면 상담과 건강 검진을 거쳐 골수기증 방법 또는 말초혈 조혈모세포 기

증(성분헌혈방식) 방법으로 기증하게 된다. 성신여자대학교는 2009년부터 매년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에 기증서약을 하고 있다. 최종 기증에 성공한 사례는 지난 2014년 3월 첫 기증자 이후로 이번이 두 번째다. 안여명 학생은 “HLA형이 일치할 가능성은 친형제, 자매의 경우에도 4명중 1명 정도로 희박하다”며 “기증 희망자 중에서도 막상 최종 기증은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여명 수기 처음 전화가 걸려 온 것은 수업시간이었다.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에서 전화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화내용은 나와 유전자 일부가 일치하는 환자가 있으니 기증을 부탁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정밀 검사를 통해 나머지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내 대답은 ‘할게요’였다. 사람을 살린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가족들과도 일치하지 않는 유전자인데 내가 이것을 거절하면 매우 희박한 확률 속에서 또 힘들게 누군가를 찾아야하고 그동안 환자의 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으니깐. 그 다음에 들었던 생각이 나에게 대한 걱정이었다. 평소에 팔에서 채혈을 해본 적이 별로 없다. 그 이유는 나도 잘 모른다. 혈관이 잘 안보인다나. 안타깝게도 양쪽 팔 다 그렇다. 그래서 사실 처음 기증등록을 할 때도 안하고 지나치려 했었다. 학생회 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증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나에게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기증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하겠다고 했고 기증방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다.

기증을 하려면 유전자가 다 일치해야 해서 조금의 채혈을 통해 확인했다. 다행히 다 일치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기증하기로 했다. 기증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길다. 준비해야 할 것은 별로 없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다. 기증 한달 전 즈음 건강검진을 하고 기증 3~4일 전부터 백혈구 촉진제를 맞는다. 성인에서는 골수에 약 1% 정도의 적은 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원활한 기증을 위해 촉진제를 맞게 된다. 주사를 맞으면 몸이 매우 아프다고 한다. 나는 감기 기운이 있었고 속이 좀 안 좋았다. 촉진제 때문에 몸이 아팠던 건지는 잘 모르겠다. 2박3일 동안 입원을 통해 기증이 진행된다. 최대한 나를 배려해주셔서 내 팔에서 열심히 혈관을 찾아봐 주셨지만 결국 중심정맥관 삽입을 통해 기증을하기로 결정했다. 조혈모세포기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요즘 실시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말해보자면, 조혈모세포를 예전처럼 골수에서 직접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초혈액에서 채취하는 하는데 방법은 헌혈과 같다. 양팔에 바늘을 꽂아서 한쪽에서는 피가 나오고 다른 한쪽으로는 조혈모세포를 제외한 나머지 혈액성분이 다시 내 몸으로 들어온다. 그런

데 나는 양 팔에서 채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에 바늘을 삽입하여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예상은 했지만 조금 무서웠다. 입원해서도 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안할거라 믿고 싶었다. 더군다나 학기가 시작하고 입원한 거라 병실엔 나 혼자였다. 나중에 친구가 와서 나를 돌봐주었지만 혼자 병실에서 수술을 기다리는건 정말 초조했다. 수술이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다. 수술 자체는 괜찮다. 국소마취 후에 카테터를 목에 삽입하고 끝난다. 금방 끝난다. 그렇게 아프지도 않다. 생각보다 참을만하다. 문제는 수술 후인데 좀 아프다. 많이 아프다. 일단 상체에 힘을 줄 수가 없다. 진통제를 맞아도 아프다. 그래서 엑스레이 찍을 때, 침대에서 일어날 때, 밥 먹을 때(사실 밥맛도 없다), 특히 잘 때 고생했다. 누워서 잘 수가 없어서 옆드려서 잤다. 다음날 8시 39분에 조혈모세포 기증 센터에 갔다. 병실 바로 옆에 있다. 가면 침대에 누워서 4시간동안 움직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리 현상은 미리 해결하고 가야한다. 목에다가 혈액이 나오고 들어갈 카테터를 연결하고 누워있으면 된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손이 자유로워서 호스

02 학생

를 만져봤는데 생각보다 피가 뜨거웠다. 내 몸은 36.5도가 맞았다.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전날 아파서 잘 못 잔 탓인지 잠들었다. 시간이 참 안갔다. 자다 깨도 두시간밖에 안지나있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4시간이 지나갔다. 간호사선생님이 백혈구 수치가 높다고 잘된 것 같다고 하셔서 뿌듯했다. 전달 결과가 나오면 카테터를 제거한다. 다행히 부족하지 않다고 해서 제거하고 쉬었다. 자기 전에 창박을 봤는데 야경이 너무 예뻐다. 다음날 퇴원한다는 사실이 너무 너무 아쉬웠다.

다음날 나는 퇴원했고, 2주 뒤에 혈액 검사를 하러 갔을 때 환자분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알려주셨다. 정말 다행이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겪지 못할 일을 경험했다. 정말 값진 경험이고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살면서 누군가를 살린다는 것은 의사가 아니면 하기 힘든 일인데 내가 한 생명을 살렸다. 앞으로 기증을 할 일은 없겠지만 만약 또 전화가 오면 그때도 나는 할 것 같다. 환자분이 얼른 회복해서 어디선가 건강한 모습으

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p.s. 기증전화를 하면 거절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봤는데 거절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 내가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 그렇지 전혀 무서울 것 없다. 헌혈도 하는데 이걸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과정이 좀 길고 복잡해서 그렇지 내 몸에 해롭거나 하는 문제들은 전혀 없으니 언젠가 전화를 받는다면 꼭 하길 바란다. (안여명, 2016학번)

국제진료 간호사 전문과정 1기 수료

2017년 7월 11일부터 8월 24일까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주최한 <국제진료 간호사 전문과정 1기>과정이 진행되었다. 전국 13개 간호대학의 총 39명의 학생들이 선발되어 매주 화, 수, 목요일 동안 국제진료현장에 꼭 필요한 외국인환자 응대 커뮤니케이션 기법, 외국인환자의 의료사고 이해, 외국인환자 컨시어지 업무 프로세스 이해, 국제진료분야의 전망과 비전, 국제의료보험 제도 및 수가, 국제진료센터 마케팅 기법 등 뿐만 아니라 외국인환자와의 의료서비스에 필요한 국제진료 현



장 외국어회화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참여 학생들은 각 8개의 조를 나누어졌고, 국제진료센터가 있는 병원을 선택하여 그룹별로 발표를 하였고, 현장에 있는 실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평가를 하였다. 마지막 날에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국제진료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상승시키고, 역량강화를 할 수 있던 시간을 가졌다. 성신여자대학교에서는 “유나영, 한나래, 박민정, 임예슬, 심예진” 등 5명의학생이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수료하였다.

국제진료 간호사 전문과정 1기 수료 후기

지난 여름방학 동안 국제진료 간호사 전문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이 수업을 참여하게 된 계기는 미군병원 실습 이후 외국인환자에 관한 관심이 생겼었

는데 마침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실습 때 일상생활에서 영어 의사소통과 임상을 영어로 경험하는 것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국제진료 간호사 전문과정은 입장에서 필요한 영어표현을 익힐 좋은 기회였습니다. 수업은 참여형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계속 소리내 반복하고 마지막에는 학생들끼리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발표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과 역할극을 함으로써 배운 표현들을 적용해볼 수 있었습니다. 수업 외에도 학생들에게 항상 신경을 써주시는 선생님들과 다른 학교 학생

02 학생

선생님들을 만나며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4학년 여름방학이라 취업을 병행하느라 수업에 결석하는 게 아쉬웠고, 3학년 때 참여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학 동안 일주일에 3일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간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 이상으로 배울 게 많던 수업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병원 국제진료센터에 근무 중인 선생

님들께서도 방문하여 강연해 주셨습니다. 각 병원 특성에 따라 진료하는 환자들의 국적도 달라진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서울성모병원 국제진료센터를 직접 견학도 가는 등 학생들에게 간접적으로 임상을 경험하도록 해주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의료분쟁과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 현재 외국인 진료는 통역사를 통한 의사소통이 기본

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의료진인 간호사와 환자 간의 직접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 같아서 제2외국어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 임상에서 외국인환자를 만나더라도 문제없이 의사소통과 전문적인 간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진료 간호사 전문과정과 같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알려져서 더 많은 친구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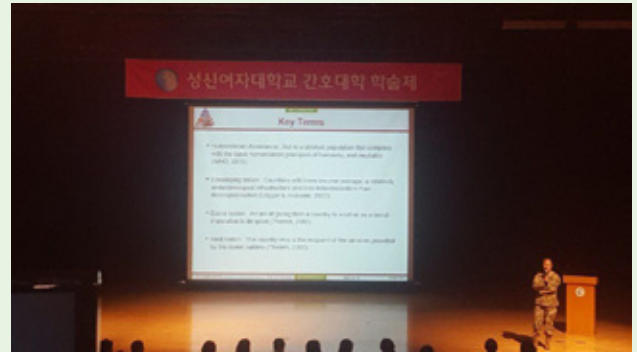
(유나영, 2014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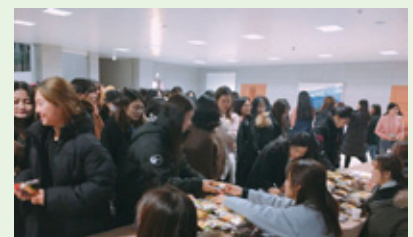
02 학생

학술제

2017년 11월 16일 운정캠퍼스 중강당에서 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 학술제가 개최되었다. 올해 학술제에서는 1부 [성신, 의료인으로 품대와 2부 [성신,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및 건립 10주년 홈커밍 행사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 [성신, 의료인으로 품대에서는 주한 미육군 의무부대 브라이언 올굿 커뮤니티 병원(65th Medical Brigade Brian Allgood Army Community Hospital)의 McCall 대령이 “Humanitarian Civic Assistance-Medical”이라는 주제로, 미군의료진으로서 세계 각국의 의료봉사 경험을 소개하며, 의료인으로서 참된 봉사의 의미에 대해 강연하였다. 이어 4학년 재학생 4팀이 팀별로 진행하였던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2부 [성신, 우리 모두 하나되어]에서는 다수의 성신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이 함께 모여, 현직 간호사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전문직 간호사로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가지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그 외에도 포토존 설치, 알뜰장터, ‘보일락 말락’ 퀴즈, Sungshin Subway 등 다양한 행사를 가진 뜻깊은 행사였다.



| McCall 대령 강의



02 학생

간호대학 건립 1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2017년 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이 건립된 10주년으로 홈커밍데이, 알뜰 장터 등 다양하고 의미있는 행사를 마련하였다. 특히, 알뜰장터를 위해 간호학과 교수들이 여러 물품을 기증하였다. 기증품 전달식은 2017년 11월 15일(수요일) 4시 30분에 학장실에

서 이루어졌으며, 기증품은 전공서적, 약세서리, 텀블러, 가방, 우산, 식품 등으로 다양한 물품으로 구성되었다. 알뜰장터 판매 수익금은 간호학생의 복지를 위해 쓰여질 계획이다.



2017 PRN 취업설명회

2017년 12월 2일 운정캠퍼스 소강당에서 PRN 취업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이 설명회는 매년 간호학과 재학생 4학년 중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이 3학년 후배들에게 병원취업과 관련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자리로, 간호학과

재학생 약 120명이 참석하였다. 참석 학생에게는 PRN 자료가 제공되었고, 각 병원별로 합격한 4학년 학생들이 병원별 특성, 인턴십 경험, 지원서류, 면접스터디, 면접분위기, 태도와 복장, 합격전략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3학

년 학생들은 관심이 있는 병원에 대한 정보를 얻고, 궁금했던 점에 대해 적극적인 질의응답시간을 가짐으로서 2018년 병원지원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02 학생

학생대표 간담회



| 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 32대 학생회 간담회

학년별 과대표들은 간호대학장, 학과장과 2017년 9월 25일 학생대표 간담회를 가졌다. 김동희 학장은 학생과 교수 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수업 관련 제반 역할을 담당하는 과대표들의 노고를 치사하고 격려하였다. 또한, 과대표로서 인식하게 된 문제점이나 학과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학년별 장학금 수혜율

학년도	학기	학년	장학금 수혜인원	재학생수	장학금 수혜율
2017	1학기	1학년	101	104	97.1%
		2학년	98	102	96.1%
		3학년	79	98	80.6%
		4학년	92	111	82.9%
	1학기 합계		370	415	89.2%
	2학기	1학년	88	100	88.0%
		2학년	95	101	94.1%
		3학년	94	96	97.9%
		4학년	106	114	93.0%
	2학기 합계		383	411	93.2%
2017학년도 전체			753	826	91.2%

* 재학생수는 2017학년도 4월 1일, 10월 1일 교육부 통계 기준

* '장학금 수혜율 = 장학금 수혜인원/ 재학생수' 로 계산, 수혜학생이 중복계산된 비율임

02 학생

학생회 소개

간호대학 공동학생회장 16학번 배나연, 김민영

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 학생회는 간호학과 학생의 복지를 위해 존재합니다. 간호대학 멘토링 프로그램, 학술제, 간식행사, 1004Day, 간호인의 밤, 복지행사 등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학생회는 총 3개의 부서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사 기획 및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홍보부', 행사 관련 문서를 주로 작성하는 '문화사무부', 명단 제작 및 복지행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학생복지부' 총 3개의 부서가 간호대학 학생의 복지를 위해 체계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국가고시 학생회 지원

제58회 간호사 국가고시가 2018년 1월 26일(금) 무학중학교에서 치뤄졌다. 학생회 임원진 및 양승애 교수, 천주영 교수가 함께 4학년 국가고시 응시자를 응원하였다. 한파에 몸을 따뜻하게 해줄 핫팩, 정성이 담긴 간식과 든든한 도시락, 컴퓨터 사인펜과 수정테이프에 사랑을 듬뿍 담은 간식과 함께 전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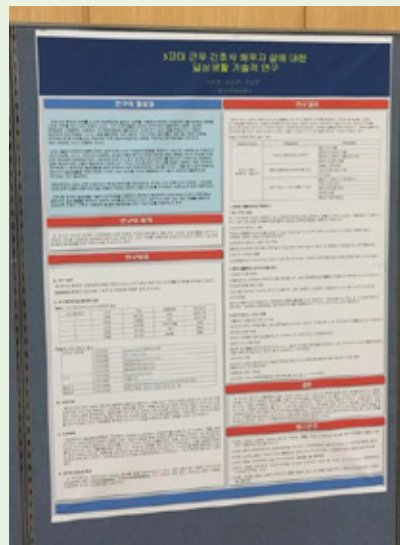
03 대학원

대학원 졸업생 수상

간호대학은 2017년 3월 3일(금) 오후 4시 30분 간호대학장실에서 김동희 간호대학장과 양승애 간호학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원 졸업생 김미경이 노인전문간호사협회의회장상을 받았다.



2017년 11월 4일 석사과정 대학원생 국현정과 김효진은 연세대학교 삼성관에서 개최된 ‘한국생활환경학회 2017년 추계학술대회’에서 “3교대 근무 간호사 배우자 삶에 대한 일상생활 기술적 연구”라는 주제로 포스터를 발표하였다.



또한, 우리 대학 석사과정 대학원생 김효진 학생은 2017년 12월 9일 개최된 ‘2017년 한국아동간호학회’에서 “아동간호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졸업생

2017년 간호대학에서는 일반대학원에서 5명, 노인전문간호사과정 3명이 석사학위를 수여받았다.

노인전문간호사과정 대학원생 6명(김해숙, 김미경, 김경

미, 배운혜, 권혜미, 구효훈)은 2017년 8월에 진행된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주관 노인전문간호사 자격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노인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학위수여일	전공(간호학석사)	성명	논문명
2017년 8월	간호학과	박안나	병원간호사의 언어폭력경험과 감정노동, 감성지능 및 사회적지지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전문간호사과정	이경원	지역사회 노인의 치매지식, 치매불안감 및 치매예방행위와의 관계
2018년 2월	간호학과	국현정	조혈모세포이식환자 가족돌봄제공자의 돌봄부담감 관련요인
		김효진	소아중환자실 입원 아동의 섬망 발생 관련요인
		박윤주	생태체계모델을 기반으로 한 초기 경력 간호사의 이직의도 영향요인
		정경화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생활습관이 중년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노인전문간호사과정	박서희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김경미	편마비 환자의 수면의 질, 사회적지지, 낙상효능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04 SWANS 센터

주한 미육군 의무부대 브라이언 올굿 커뮤니티 병원 의료진의 시뮬레이션 훈련 실시

주한 미군 의무부대 브라이언 올굿 커뮤니티 병원의 의사, 간호사, 위생병, 간호장교 등 의료진 14명은 2017년 8월 8일, 8월 9일 이틀에 걸쳐 SWANS 센터에서 하계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하였다. 분만 후 출혈 환자, 응급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신생아, 폭탄으로 인한 상지 절단 환자, 헬리콥터 추락으로 인한 복부 손상 환자, 손상으로 인한 응급수술 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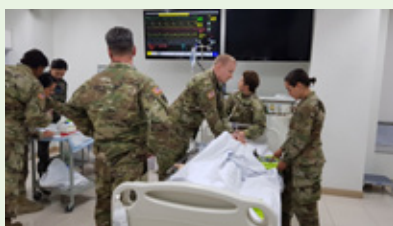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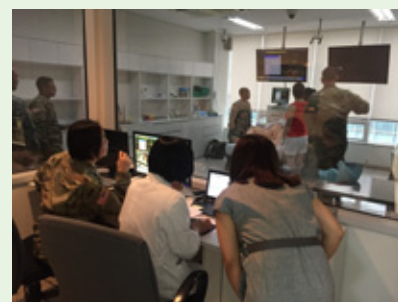


에 대한 시나리오를 통해 다양한 시뮬레이션 상황을 경험하였다. 시뮬레이션 훈련을 마친 의료진은 시뮬레이션 녹화영상을 시청하고 디브리핑 과정을 통해 시나리오 상황 및 환자 사정에 근거한 적절한 의료 기술 제공 및 팀워크 능력 향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시뮬레이션 훈련 책임자인 Kuster 소령은 “의료진이 SWANS 센터에서 자신이 속한 병

동 뿐 만 아니라 다른 병동/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 경험을 해 봄으로써 적절한 대처방안을 익히고 팀워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전했다.

동계 시뮬레이션 교육은 2018년 2월 18일에 실시되었으며, 의료진 11명이 참여하였다. 뇌졸중, 고체온, 응급 심폐소생술과 같은 다양

한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하였다. Coleman-Adams 중령은 “시뮬레이션 훈련을 통해 다양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응급상황 시 의료진간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경험한 좋은 기회였다”라고 전했다.



04 SWANS 센터

주한 미육군 의무부대 브라이언 올굿 커뮤니티 병원 (65th Medical Brigade Brian Allgood Army Community Hospital) 간호부장 방문

2017년 8월 1일 주한 미군 의무부대 브라이언 올굿 커뮤니티 병원(65th Medical Brigade Brian Allgood Army Community Hospital) 간호부장 Ruiz 대령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Kuster 소령이 우리 간호대학을 방문하였다. 2012년 우리 대학과 브라이언 올굿 커뮤니티 병원이 MOA를 맺은 이래로 매년 40명의 간호학생이 브라이언 올굿 커뮤니티 병원에서 실습을 경험하고 있으며, 2012년 우리 대학 SWANS 센터와 브라이언 올굿 커뮤니티 병원이 간호학생-미군병원 실습과 관련한 MOU를, 2016년에는 미군병원 의료진의 우리 대학에서의 시뮬레이션 교육과 관련한 MOU를 체결하여 SWANS 센터에서 미군 의무부대의 시뮬

레이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간호부장 Ruiz 대령은 앞으로 두 기관의 파트너십을 통한 간호학생 실습교육 및 의무부대 의료진의 의료기술 향상이 기대된다고 하였다.



3,4학년 시뮬레이션 실습 종합시험 실시



시뮬레이션 관련 핵심간호술기 종합평가가 2017년 12월 26일 SWANS center 통합실습실에서 전체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간호학과 교수 9명이 참여하여 임상에서 수행빈도가 높은 핵심간호술기를 선정하여 평가하였다.

전체 4학년을 대상으로는 시나리오 기반 임상수행능력 종합평가가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되었다. 지난 1년간 시뮬레이션 실습을 통하여 습득한 9개의 시나리오를 재평가함으로써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04 SWANS 센터

동계 시뮬레이션 교육 워크숍 “하루 만에 시뮬레이션 교육 따라잡기”



SWANS센터에서는 2018년 2월 9일 시뮬레이션 기반의 간호교육(simulation-based nursing education)을 준비하는 교수자들을 위한 <시뮬레이션 교육 입문자 과정>을 개최하여, 총 46명의 교수가 수료하였다. 본 워크숍은 오전에는 시뮬레이션 교육의 이해(김영주 교수), 시뮬레이션 모듈 개발 및 운영(김영주 교수), 디브리핑의 방법의 이해(김은정 교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오후에는 성인, 아동 전공별로 그룹을 지어 직접 시뮬레이션 모듈을 개발하고, 개발된 시나리오를 구동한 뒤 디브리핑 경험을 가지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수료자들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시뮬레이션 구동원리 및 디브리핑 과정에 대한 이해와 시뮬레이션 교육 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05 교수

교수동정

정명실	• 2017년 2학기 연구년 • 한국간호교육학회회장, 한국정신간호학회 부회장, 서울시정신간호회장으로 선출됨
김동희	• 2017년도 2학기 K-MOOC 강좌 개설(아동 청소년의 건강 환경)
전나미	• 대한중양간호학회 부회장으로 선출됨
김영주	• Certified Healthcare Simulation Educator(CHSE, 의료시뮬레이션 교육자자격증) 획득 <의료시뮬레이션 교육자자격증, CHSE>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시뮬레이션학회인 Society for Simulation in Healthcare (SSH)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으로써 의료시뮬레이션 교육에 대한 지식, 기술, 교육능력을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소정의 심사와 시험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부여한다. 본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의료시뮬레이션관련 경력에 대한 서류심사와 3명의 동료추천을 통한 1차 심사를 통과한 다음, 의료시뮬레이션관련 지식에 대한 2차 컴퓨터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김영주교수는 2017년 4월 21일 모든 과정을 통과하여 최종자격증을 획득하였다.
임경춘	• 노인전문간호사 교육과정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됨
천주영	• End-of-Life Nursing Education Consortium(ELNEC)-Critical PalliativeCare Trainer 자격증 획득

연구비 수주

• 교내

교수명	연구주제
정명실	• 인터넷중독예방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효과: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 허혈성 뇌졸중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들의 유병률 파악 연구: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2013-2015) 자료를 기반으로
김애리	• 간호사의 소명의식, 직무만족, 조직지원인식이 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연구
고정미	• 중환자 간호사의 윤리적 갈등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 간호대학생의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김동희	• 간호대학생의 실습시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전나미	• 국가암등록통계 자료의 암 생존율을 기반으로 한 의료서비스 품질수준 분석 • 근치적자궁절제술 후 배뇨장애가 자궁경부암 여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김영주	• 환자안전인식에 대한 조사
임경춘	• 치매노인 특성과 돌봄제공자 부양부담과의 관계
천주영	• 노인의 연명치료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한국노인의 연명치료 중단 및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 교외

교수명	연구주제	연구비수주기관
조정민	• 노인의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Road Map Time -Traveling Intervention(RMTI) 개발 및 평가	한국연구재단
김동희	• 액션러닝 기반의 간호임상실습 블렌디드 모델 개발 및 평가	한국연구재단
김영주	• 표준화된 시뮬레이션교육패키지 개발 및 보급	한국연구재단
임경춘	• 노인의 인지기능증진을 위한 맞춤형 간호서비스 적용 및 효과검증을 통한 간호서비스 표준화 모형 개발 • 강북구민 정신건강, 자살 실태분석 연구	한국연구재단 강북구보건소
천주영	• 간호대학생을 위한 통합적 연명의료 및 사전의료의향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한국연구재단

06 동문회

동문 장학금

학년도	학기	동문장학금명	수혜자성명	장학금액
2017	1학기	간호대학 뉴욕장학금	오은아	530,000
		간호대학 뉴욕장학금	이유경	530,000
		간호대학 16기장학금	안동은	500,000
		간호대학 총동문회장학금(교내적립)	박승아	500,000
		간호대학 총동문회장학금(교내적립)	황지후	500,000
		간호대학 총동문회장학금(교내적립)	고연동	500,000
		간호대학 총동문회장학금(교내적립)	정진아	500,000
		간호대학 총동문회장학금(교내적립)	김보경	500,000
		간호대학 총동문회장학금(교내적립)	문현지	500,000
	1학기합계			4,560,000
	2학기	간호대학 총동문회장학금(교내적립)	백미현	500,000
		간호대학 총동문회장학금(교내적립)	이희정	500,000
		간호대학 총동문회장학금(교내적립)	정유진	500,000
		간호대학 총동문회장학금(교내적립)	최수민	500,000
	2학기합계			2,000,000
2017학년도전체				6,560,000

동문회 동정

2017년 5월에 황은숙(27기 1988년 졸업), 정향숙(26기 1987년 졸업), 김완숙(24기 1985년 졸업), 김선옥(24기 1985년 졸업) 동문이 보건복지부 공무원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였다.

이성남(24기 1985년 졸업) 동문이 서울시 사무관으로 승진하였다.

2017년 1월 정경옥(21기, 1982년 졸업, 5급 사무관) 동문은 국립재활병원 간호과장으로 부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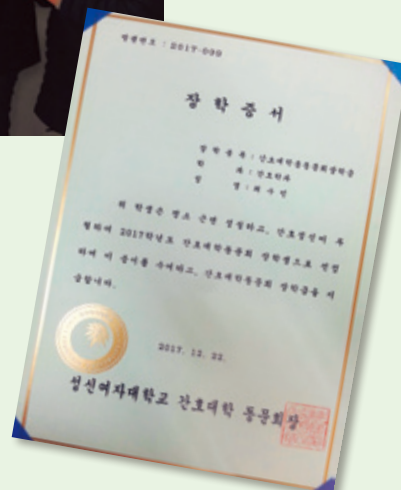
김완숙 동문(24기, 1985년 졸업, 5급 사무관) 동문은 국립목포병원 간호과장으로 부임하였다.

김선옥(24기, 1985년 졸업, 5급 사무관) 동문은 국립소록도병원 간호과장으로 부임하였다.

최선애(26기, 1987년 졸업, 5급 사무관) 동문은 국립마산병원 간호과로 발령받았다.

정향숙(26기, 1987년 졸업, 5급 사무관) 동문은 국립나주병원 간호과로 전보 발령 받았다.

안유미(36기, 1993년 졸업) 동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장으로 승진하였다.



06 동문회

동문회 총회

2017년 11월 24일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2017년 정기총회 및 송년회가 개최되었다. 85명의 동문이 참석한 동문회 총회에서는 2017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를 하였으며, 2018년 동문회 추진사업에 대해 의결하였다. 동문간의 교류와 친목의 장을 마련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동문회 뉴욕지부

2017년 11월 17일 뉴욕한인간호협회(New York Korean Nurses Association; NYKNA) 주관으로 200여명의 한국인 간호사와 가족들이 모인 ‘한인 간호사의 밤’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뉴욕한인간호협회 17대와 18대 회장을 역임한 조명숙 동문(15기, 1976년 졸업)이 뛰어난 리더십으로 뉴욕한인간호협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받았다.

2018년 2월 24일 정기동문회가 뉴욕의 대동연회장에서 개최되었다. 이 송년회에서는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동문 100여명이 참석하여 교류와 정보,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도옥주 회장(18기, 1979년 졸업)의 임기가 만료되어 정은실 동문(17기, 1978년 졸업)이 차기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2년간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도옥주 동문(18기 1979년 졸업)은 Hunter-Bellevue School of Nursing (CUNY: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에서 정신전문간호사자격증(Psychiatric Nurse Practitioner)을 취득하여 Bronx Psychiatric Hospital에서 정신전문간호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도옥주 동문은 Creedmore Psychiatric Center에서 수간호사와 간호과장으로 20여년간 근무하였는데, 간호사로서의 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이루어낸 뜻깊은 성과이다.



재외한인간호사회 회장으로 조명숙 동문 당선

조명숙 동문(15기, 1976년 졸업)은 2017년 10월 하와이에서 개최된 전세계 한인 간호사들의 모임인 재외한인간호사회(Overseas Koreans Nurses Association; OKNA) 제4차 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조명숙 동문은 Norshore Hospital에서 Hemodialysis Unit의 nurse Practitioner와 Nursing Education을 담당하고 있다. 조명숙 회장은 앞으로 2년 동안 전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간호사들의 권익신장과 파워 향상에 노력할 예정이다.



07 졸업생 소식

졸업생간담회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졸업생들의 병원 적응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년 1-2회 병원별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3교대 근무로 바쁘게 지내느라 서로 만나지 못했

던 동기들, 선후배와 신규취업자가 한 자리에 모여 서로를 응원해주고, 자신의 경험과 최신 간호정보를 교환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 강남세브란스병원



| 서울아산병원

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 1회 졸업생 조수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석사학위 및 전문간호사 자격증 취득

안녕하세요? 성신여자대학교 간호학과 1회 졸업생 조수지입니다. 부분 마음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참석한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간호대학이 10주년을 맞았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2011년 성신간호 졸업 후 삼성서울병원에서 5년 조금 안되는 경험을 바탕으로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Adult-Gerontology Primary Care Nurse Practitioner이 되었습니다. 보통 Nurse Practitioner (NP) 이라 하면 한국어로 '보통 의사가 하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훈련 받은 간호사' 또는 '개업간호사'로 검색이되거나 알고들 계실겁니다. 미국에서 NP의 경우, 환자검진(assessment/exam), 진단(diagnosis), 치료제공

(provide treatment) 및 약물 처방 (medication prescription)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medical provider로 분류가 됩니다. 저 또한 중증급성도의 환자들이 병원치료 후 퇴원시 community 로 돌아가기 전, 적절한 치료 및 관리/재활을 받을 수 있는 Skilled Nursing Facility (SNF) 메디컬 팀의 일원으로 얼마전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가 공존하는 미국에서 한국인 NP로써 일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간호의 새로운 영역을 경험함과 동시에 배운것이 더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을때마다 제 자신이 지금껏 얼마나 많은 노력을하며 이곳까지 달려왔는지에 대한 생각을 매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때마다, 간호인으로

써의 첫 걸음이 되어준 성신간호, 여러분이 지금 위치해 있는 그 자리를 되돌아보면서 더욱더 굳건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



었습니다. 1회 졸업생으로써 후배 여러분들을 보면 뿌듯하고 또 같은 간호학교도써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들께 Nursing의 potential은 앞으로 더욱더 무궁무진하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주년 정말 축하드리고 성신간호 화이팅입니다!

(조수지, 1회 졸업생)

07 졸업생 소식

아일랜드로부터 온 소식



안녕하세요, 후배님들. 유럽의 작은 나라, 음악이 끊이지 않는 곳, 아일랜드에서 제 이야기를 전합니다. 혹시 2016년도 간호의 밤에 참여했었다면, 제가 신규간호사로서의 생활과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 후배님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부터 아일랜드에서 국제학생들이 가장 많은 University College Cork에서 간호학 석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곳을 선택한 이유가 특별하지는 않았지만, 이곳에서의 생활이 행복하고 대학원과정도 아주 만

족스럽습니다. 저는 이 곳에 오기 전 ICU에서 일하면서 환자의 삶의 질과 그와 관련한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여러 의문과 관심이 있었기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영국과 같은 공공 의료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의료와 간호의 많은 부분들이 표준화 되어있고, 또, 근거기반간호, 환자의 권리와 안전, 간호사의 권리와 의무, 안전에 관한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이 제가 이곳에서 간호를 배우며 가장 크게 느낀 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BLS/ACLS와 manual handling과 같은 과정들이 간호사로서 일하기 위해 필수이며, 이에 따라 저도 이번 달에 manual handling course를 이

수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곳에서 국경없는의사회(MSF)의 서포터즈 활동과, 대학교 댄스동아리의 일원으로서 공연 수익금으로 병원 환자들을 후원하는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는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라는 제 인생관을 이루기 위해 간호사가 되었고, 계속 공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제 삶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성신간호 모든 후배님들도 다양한 도전과 경험을 통해 행복하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 또 열심히 공부하시어 모두 훌륭한 간호사의 꿈을 실현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한은진, 2016년 졸업)

